

기생충 감염 양상과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발표

- '87년도 대한 기생충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참관기



손 운 목

이번 학회에서 발표된
연제의 특징을 들면
첫째 연구대상 기생충은
흡충류가 가장 많았고,
둘째 우리나라에서
임상적 중요성이 높은 간흡충
유구낭미충 및 폐흡충에 대한
연구가 많았으며,
셋째 고전적인 방법보다는
최신의 시설과 방법을 이용한
연구가 많아졌다는 점이다.

대한기생충학회 제29회 학술대회 및 총회가 지난 10월 30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개최되었다. 학술부 책임을 맡고 계신 선생님을 돕기 위하여 다른 회원들 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학회장을 돌아 보았다. 병원옆 간호원 기숙사내에 마련된 학회장은 장소를 제공해주신 백 영한 교수의 알뜰하신 배려를 대변해 주는 듯 아담하고 깨끗하였다.

회원등록에 이어 개회사 및 학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09시 35분부터 연제발표가 시작되었다.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오전 연제 20편이 발표, 토의된 후 총회가 개최되었다. 국민의례에 이어 공로상 및 학술상의 시상식이 있었는데 공로상은 우리나라 기생충학의 발전에 크나큰 발자취를 남기셨고 지금도 일선에서 후학들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전심전력하시는 인하의대 서 병설 교수에게 증정되었고, 학술상은 "남한강 유역의 호르텐스극구흡충 감염실태와 생활사에 관한 연구"라는 논문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안 영겸 교수께서 수상하셨다. 그후 예정된 순서에 따라 감사



◀ 면역억제제의 사용이 많아지고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에도 Cryptosporidium 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

보고, 결산보고, 예산심의 및 승인 등이 진행되었고 새로운 평의원이 임명되었다. 평의원들에 의하여 새로운 회장단이 선출되었다. 새로운 평의원으로는 경희의대 백 영한, 순천향의대 이 옥란, 충남의대 신 대환, 서울의대 홍 성태 회원 등이 임명되었고, 신임회장에는 중앙의대 조 승열 교수가 선출되었으며, 부회장에는 오늘 학술상을 타신 안 영경 교수가, 감사에는 경희의대 백 영한 교수와 고려의대 이 준상 교수가 각각 선출되었다.

무척 빡빡한 일정으로 인하여 점심시간이 많이 늦어졌고, 모두들 배가 고파지만 잘 견디어 주셨고 학회장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지하실 골방 같은 식당이었지만 모처럼 만난 친한 회원들끼리 담소하며 더러는 가볍게 한잔하면서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.

다시 오후 연제의 발표가 시작되어 예정된 17연제중 16연제가 구연되었다. 구연 도중 16시 25분부터 약 35분간 서울의대 이 순형 교수의 사회로 포스터 내용의 간단한 소개 및 질의 시간이 마

련되었다. 이는 학술부에서 포스터발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번 학회에서 처음 시도한 것인데 구연에 못지않은 흥미를 끌었고, session이 끝난 후 박수를 받는 등 시종 화기에애한 분위기였다. 이번과 같은 포스터발표는 포스터연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었다.

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연제는 총 61편이었으나 59편이 발표되었고 그중 구연이 36편, 포스터발표가 23편이었다.

연구대상 기생충별로는 흡충류에 대한 연구가 27편(45.8%)으로 가장 많았고, 원충류 11편(18.6%), 조충류 8편(13.6%), 선충류 7편(11.9%) 윤충류일반 5편 곤충에 관한 것 1편이었다. 그리고 기생충별로는 간흡충에 관한 것이 9편으로 가장 많았고 유구낭미충이 7편, 폐흡충이 5편이었으며, 연구내용별로는 기생충이 면역반응 및 면역학적 진단에 관한 것이 20편으로 전체연제의 1/3을 차지하였다. 따라서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연제의 특징을 들면 첫째 연구대상 기생충은 흡충류가 가장 많았고, 둘째

우리나라에서 임상적 중요성이 높은 간흡충, 유구낭미충 및 폐흡충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, 셋째 고전적인 방법보다는 최신의 시설과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많아졌다는 점이다.

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연제의 대부분이 참신하고 좋은 내용이었으나, 지면관계상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몇 연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한양의대 민 득영 교수가 발표한 “*Acanthamoeba* species의 세포화학적 관찰”은 항혈청이 자유생활아메바의 세포막을 파괴하고 수축포의 이온대사를 저해하며 세포호흡의 장애를 초래케 한다는 내용이었다.

서울의대 채 종일 교수는 “닭의 비장 세포가 *Eimeria tenella* sporozoite의 생존 및 발육에 미치는 항진효과”라는 연제를 발표하였는데,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재미있는 내용이었다.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생충이나 박테리아와 같은 병원체가 숙주의 면역계 세포를 침입했을 때 성장이 억제될 것이라 생각한다. 그러나 닭의 비장세포에 들어간 *E. tenella*의 sporozoite는 도리어 성장발육이 항진되었다는 내용으로 이는 오랜 진화과정 동안 잘 형성된 기생충-숙주 상호관계가 면역반응을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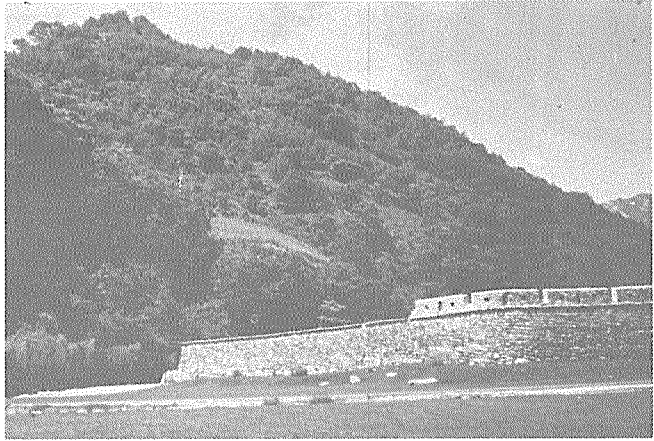
미국 아리조나대의 조 명환 선생은 “새로운 인체 병원체인 *Cryptosporidium* species : 단세포균 항체 생성과 Western blot을 이용한 sporozoite 항원의 분석”에 대한 발표를 하였는데 발표내용보다도 우선 *Cryptosporidium*은 후천성 면역결핍증(AIDS) 환자에게 치명적인

“
간흡충, 폐흡충, 유구낭미충에
대한 면역학적 연구, 이질아메바,
질트리코모나스 등 원충류에 대한
연구도 발표 되었다
”

감염증을 일으키는 기생충으로 알려져 있으며,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고된 적이 없다. 그러나 면역억제제의 사용이 많아지고 후천성면역결핍증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 기생충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이 기생충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. 국립보건원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남해안 일부 도서 지역에서 실시한 말레이사상충증의 역학 및 임상적 연구에 대하여 발표하였고, 서울백병원 임상병리과와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팀은 경북 청송군에서의 호르텐스극구흡충 유행에 관한 역학적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 연제가 이번 학회에서 대내 및 대외적인 관심을 고조시킨 연제였다.

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호르텐스극구흡충은 5례에 불과하며, 감염량도 많지않다. 그런데 이 연구는 한꺼번에 51명의 총란양성자를 검출하였고, 32명에서 일인당 1~649마리의 충체를 검출하였으며, 감염자의 상당수가 *Meatagonimus*와 혼합감염이었다는 내용이었다. 그리고 이 연구는 서울의대 기생충학의 “충북 음성군 일부 주민의 장내

▶ 근래 우리나라와 내륙일부지역에서는 호르텐스극구 흡충과 같은 장흡충의 유행이 국소적으로 일어나고 있다.



윤충류 감염 및 장흡충의 감염원 조사”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근래 우리나라 기생충감염의 양상과 내륙일부지역에서 이러한 장흡충의 유행이 국소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.

중앙의대 조 승열 교수는 “제주도 간질환자에 있어서 유구낭미충 특이 IgG 항체 양성률”에 대하여 발표하였는데, 간질환자중 상당수가 유구낭미충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흥미 있는 내용이었고, 서울의대 기생충학에서는 *Fibricola Seoulensis*에 중감염된 마우스 소장의 조직병리학적 및 기능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, 경상의대 기생충학에서는 *Heterophyopsis continua*에 대한 생물학적 및 형태학적(SEM)연구를, 고려의대 기생충학에서는 간흡충, 폐흡충, 유구낭미충에 대한 면역학적 연구를, 연세의대 기생충학에서는 이질아메바, 자유생활아메바, 질트리코모나스 등과 같은 원충류에 대한 연구를 각각 발표하였다.

이밖에 여러학교 및 단체에서 발표한 좋은 연재들이 많았으나, 다 소개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연재인 “사상충증 매개종 *Aedes togoi* 습성에 관한 연구”에 대하여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몇마디 피력하고자 한다. 발표하신 이 한일 교수의 자신에 찬 발표와 “마지막인데 조금 더 합시다”라고 한 발표시간 초과에 대한 재치있는 대응도 좋았지만 모처럼 곤충학에 대한 흥미있는 연구를 접할 수 있어서 기뻐고 또 앞으로 곤충학에 대한 좋은 연구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바 크다.

이번 학회는 학회장이신 임 경일 교수를 비롯한 임원진과 실무담당자 여러분의 노고로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무사히 잘 치루어 졌지만 시간지연등 몇가지 문제점은 숙제로 남아있다.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우수학회상을 수상한 대한기생충학회 답게 다시 되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.

(필자=서울의대대학원)